

# 空海の『即身成佛義』譯註

이석환(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 I. 들어가는 글

『即身成佛義』는 일본 진언밀교의 교조인 弘法大師 空海의 저작이다. 본 서는 身口意 三密<sup>1)</sup>로 대표되는 공해의 진언밀교 교학에서 身密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진언밀교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即身成佛이다. 공해는 중국의 惠果阿闍梨에게서 師事하고 일본에 돌아와 바로 작성한 『御請來目錄』에서 현교와 밀교를 비교하며 성불을 빨리 하는 것이 밀교의 특징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공해의 진언밀교 교학이 성불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진언밀교는 빠르게 성불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본 譯註에서는 이러한 진언밀교의 즉신성불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는 『즉신성불의』를 주석하고자 한다. 『즉신성불의』에 관한 번역은 那須政隆(1982)의 『『即身成佛義』の解説』(成田山仏教研究所)과 金岡秀友(1985)의 『即身成佛義』(太陽出版)가 있지만<sup>2)</sup>, 1권의 짧은 책이기 때문에 한글본 번역은 아직 없다. 본 번역에서는 『大正新修大藏經』 77卷(No. 2428)<sup>3)</sup>과 『弘法大師全集』 第1卷<sup>4)</sup>에 실려 있는 『즉신성불의』를 비교하여 註解하였다.

- 
- 1) 身密을 말하는 것은 本書이고, 口密은 『聲字義』, 意密은 『吽字義』에서 설명하고 있다. 『우자의』에서는 三界의 業報, 『성자의』에서는 五大皆有響으로 사상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 2) 『即身成佛義』에 관한 일본어 번역본은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空海의 다른 저작과 합본되어 출판된 본이 대부분이다. 최근의 번역은 加藤精一(2013)이 角川學芸出版에서 출간한 『空海「即身成佛義」「聲字實相義」「吽字義」』가 있다.
  - 3) 「即身成佛義」(T.77), 381b-384a.
  - 4) 「即身成佛義」(『弘法大師全集』.1), 506-518.

## II. 『즉신성불의』 해제

### 1. 간략해제

『즉신성불의』는 공해의 진언밀교 교학의 핵심인 速迭成佛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다. 공해는 당나라 유학 후 귀국하여 지은 「본국의 사자와 함께 돌아와 청하는 계」<sup>5)</sup>에서 ‘이 법[密敎]은 기운을 물리쳐 행복을 부르는 마니, 凡을 벗어나 聖에 들어가는 빠른 길이다.’라고 서술하여 자신이 배워 온 밀교의 특징이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것[攘災招福]과 현세의 몸으로 부처를 이루는 것[卽身成佛]임을 말하고 있다.

이후 법상종의 德一과 만나 시간적 즉신성불사상이 완비되지 않은 것을 깨달은 공해가 六大·四曼·三密이라는 요소를 도입하여 이전의 중국밀교에서는 체계가 확실하지 않았던 새로운 즉신성불설을 확립한 것이 『즉신성불의』<sup>6)</sup>이다.

『즉신성불의』의 처음에는 현교와 밀교의 차이를 말하며 현교의 경론에서는 三劫成佛을 말하고 있지만, 밀교의 경론에서는 즉신성불을 설하고 있다고 말한 후 2經1論8個의 證文과 偈頌을 제시한 후 해석하여 즉신성불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즉신성불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大日經』과 『金剛頂經』, 『菩提心論』의 밀교계 경론으로 성불을 증명하는 2경1론8개의 증거 글[證文]. 둘째, ‘육대는 무애하여 항상 유가이다[六大無碍常瑜伽].’로 시작하는 2송8구의 계송. 셋째, 이 계송에 대한 해석[通釋]의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후 8개의 증문에는 ‘현재’, ‘현세’, ‘자신’, ‘이 몸’ 등의 언어에 의해 시간적·공간적(또는 신체적)으로 성불이 보증되는 것을 세밀하게 증명하고 있다.

증문에서는 경론에서 제시하는 즉신성불의 원리를 보여주고, 이어서 2송8구에서는 六大·四曼·三密이라는 각종의 법수체계를 순차적으로 體(본질)·相(양상)·用(작용)이라는 三大思想에 배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무애하게 융합하고 있는 모습이 성불의 경지이고, 그곳에는 나와 부처와 중생이라는 수직·수평으로 교차하는 3종의 세계도 완전히 한 몸으로 된다는 것으로서 즉신성불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5) 「性靈集」卷第五(『弘大全』3), 「請本國使與共歸啓」, 460-461.

6) 『卽身成佛義』의 卽身成佛思想에 관련된 사항은 이석환 2013, 『空海の教學思想 研究』 제IV장 참조.

## 2. 일러두기

1. 번역은 한글 우선으로 하고 독자의 이해가 필요할 경우에만 한자를 병기하였다.
2. 번역어는 원문의 음가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3. 번역은 본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직역을 중심으로 하였다.
4. 사용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역어와 음가가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 ] 역어와 음가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 > 이해를 돕기 위한 역자의 설명을 의미한다.  
【 】 원문의 각주를 의미한다.

## Ⅲ. 『즉신성불의』 역주

卽身成佛義

즉신성불의

遍照金剛撰

변조금강<sup>7)</sup> 찬

問曰. 諸經論中皆說三劫成佛. 今建卽身成佛義有何憑據.

문는다. 모든 경전과 논서에서 삼겁성불<sup>8)</sup>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즉신성불의 의미를 세우는데 어떠한 전거가 있는가?

答. 祕密藏中如來如是說.

답한다. 비밀경전 속에서 여래가 이와 같이 말하였다.

- 7) 밀교에서 大日如來를 의미하는 이름으로서 광명이 골고루 비추고 금강과 같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변조금강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空海가 대일여래를 가탁했을 수도 있지만 해과로부터 805년 여름경(6월~7월)에 태장계와 금강계의 양부관정을 받은 후 8월 10일에 전법아사리 관정을 받으며 변조금강이라는 관정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8) 매우 긴 시간에 걸쳐 수행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것으로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成佛論이다. 劫은 kalpa의 음역으로서 매우 긴 시간(무환과도 같은)의 단위이다.

問. 彼經說云何.

문는다. 그 경전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答. 金剛頂經說. 修此三昧者現證佛菩提【此三昧者謂大日尊一字頂輪王三摩地】也.

답한다. 『금강정경』에 이르기를 ‘이 삼매를 수행하는 자는 현재에 깨달음을 증득한다.’<sup>9)</sup>【이 삼매라는 것은 말하자면 대일여래의 일자정륜왕<sup>10)</sup>의 삼마지이다.】고 한다.

又云. 若有衆生遇此教晝夜四時精進修. 現世證得歡喜地. 後十六生成正覺. 謂此教者. 指法佛自內證三摩地大教王. 歡喜地者非顯教所說初地. 是則自宗佛乘之初地. 具說如地位品中. 十六生者. 指十六大菩薩生. 具如地位品說也.

또 말하기를 ‘만약 중생이 이 가르침을 만나 주야 4시로 정진하여 수행한다면, 현세에 환희지<sup>11)</sup>를 증득하고, 후에 16생<sup>12)</sup>에 정각을 성취한다.’<sup>13)</sup>라고 한다.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법불의 자내증의 삼마지대교왕을 가르킨다. 환희지라는 것은 현교에서 말하는 초지가 아니다. 이것은 자중불승의 초지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지위품』<sup>14)</sup>과 같다. 16생이라는 것은 16대보살생을 가르킨다. 덧붙이자면 『지위품』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又云. 若能依此勝義修. 現世得成無上覺.

또 말하기를<sup>15)</sup> ‘만약 능히 이 승의에 의거하여 수행한다면 현세에 무상각을 성취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한다.

又云. 應當知. 自身即爲金剛界. 自身爲金剛. 堅實無傾壞. 我爲金剛身.

또 말하기를 ‘마땅히 알아라. 자신이 금강계<sup>16)</sup>가 된다. 자신이 금강으로 된다면 견고

9) 『金剛頂一字頂輪王瑜伽一切時處念誦成佛儀軌』(T.19, 320c9-10): 修此三昧者 現證佛菩提.

10) 대일여래의 일종으로서 비륜(Bhūmī)이라는 한 글자의 진언으로 상징된다. 도상적으로는 智拳印을 맺고 있는 금강계 대일여래의 모습을 한다.

11) 보살 십지 가운데 초지인 환희로 가득찬 세계를 말한다.

12) 표면적인 의미로서는 16회의 생사를 반복하는 것이지만, 밀교 특히 『金剛頂經』 계통의 밀교에서는 금강살타를 시작으로 하는 금강계 16대보살의 덕성을 수행자의 몸에 체현하는 것이다.

13) 『金剛頂瑜伽修習毘盧遮那三摩地法』(T.18, 331b7-8): 若有衆生遇此教 晝夜四時精進修 現世證得歡喜地 後十六生成正覺.

14) 『大日經』 「住心品」에서 말하는 ‘十地段’과 『金剛頂經』 계통의 『略述金剛頂瑜伽聖位修証法門』을 말한다.

15) 『成就妙法蓮華經王瑜伽觀智儀軌』(T.19, p.594a13): 若能依此勝義修 現世得成無上覺.

16) 금강계 만다라의 부처로서 여기에서는 가운데의 존상인 금강계 대일여래를 지칭한다.

하고 확실하게 기울어져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금강신으로 된다.<sup>17)</sup>’라고 한다.

大日經云. 不捨於此身速得神境通. 遊步大空位而成身祕密.

『대일경』에 이르기를 ‘이 몸을 버리지 않고 신경통<sup>18)</sup>을 얻고, 대공위<sup>19)</sup>에서 거닐며, 신비밀<sup>20)</sup>을 성취한다.<sup>21)</sup>’라고 한다.

又云. 欲於此生入悉地隨其所應思念之. 親於尊所受明法觀察相應作成成就云云. 此經所說悉地者. 明持明悉地及法佛悉地. 大空位者. 法身同大虛而無礙. 含衆象而常恒故曰大空. 諸法之所依住故號位. 身祕密者. 法佛三密. 等覺難見十地何窺故名身祕密.

또 말하기를 ‘이 생에서 실지<sup>22)</sup>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자기의 소질과 염원에 응하는 본존<sup>23)</sup>을 사념해야 한다. 친히 본존에게 있어서 밝은 법<sup>24)</sup>을 받아 관찰하고 상응한다면 성취를 한다.<sup>25)</sup>’라고 한다. 이 경에서 설하고 있는 실지라는 것은 지명실지<sup>26)</sup>와 법불의 실지<sup>27)</sup>를 밝힌다. 대공위라는 것은 법신은 대허와 같이 무애이다. 모든 모양을 포함하여 항상하므로 대공이라고 한다. 제법이 의지하여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위라고 한다. 신비밀이라는 것은 법불의 삼밀이다. 등각<sup>28)</sup>도 보기 어렵고, 십지<sup>29)</sup>도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때문에 신비밀이라고 한다.

又龍猛菩薩菩提心論說. 眞言法中卽身成佛故是說三摩地法. 於諸教中闕而不書. 是說三摩地法者. 法身自證三摩地. 諸教者. 他受用身所說諸顯教也.

- 17) 『金剛頂瑜伽修習毘盧遮那三摩地法』(T.18, p.329a27-28): 自身爲金剛 堅實無傾壞 復白諸佛言 我爲金剛身.
- 18) 『俱舍論』 등에서 말하는 神境智証通의 약칭으로서 대상세계에 대하여 자유자재한 능력, 초자연적 능력을 말한다.
- 19) 크나큰 허공의 장소.
- 20) 법신불의 三密活動. 삼밀은 신체, 언어, 마음의 비밀스러운 작용.
- 21)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T.18, 21a10-11): 不捨於此身 速得神境通 遊步大空位 而成身祕密.
- 22) 완성을 뜻하는 범어 *siddhi*의 음사이다. 밀교의 실천으로 얻어진 결과공덕으로서 성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해석과 비교적 현실적인 목적을 갖는 경우가 있다.
- 23) 이 경우에는 밀교에 정통한 스승인 아사리를 말한다.
- 24) 明呪密法. 명주는 넓은 의미의 진언을 의미한다.
- 25)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T.18, 45c15-17): 欲於此生入悉地 隨其所應思念之 親於尊所受明法 觀察相應作成成就.
- 26) 明呪(진언)을 외우는 것에 의해 行法の 목적을 성취하는 것.
- 27) 법신불의 경지를 성취(卽身成佛)하는 것.
- 28) 부처와 동등한 위치를 얻은 보살.
- 29) 대승보살이 수행하는 52계위 가운데 41위부터 50위에 이르는 十地의 위치에 있는 보살.

또한 용맹보살<sup>30)</sup>의 『보리심론』<sup>31)</sup>에는 ‘진언법 가운데에서만 즉신성불하기 때문에 여  
기에서 삼마지의 법을 설한다. 다른 모든 가르침 속에는 <그 방법이> 빠져있어서 쓰지  
않는다.’<sup>32)</sup>라고 한다. 그러므로 ‘삼마지법을 설한다’는 것은 법신이 스스로 증득하는 삼  
마지이다. 모든 가르침이라는 것은 타수용신<sup>33)</sup>을 말하는 현교이다.

又云. 若人求佛慧. 通達菩提心. 父母所生身. 速證大覺位.

또한 ‘어떤 사람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여 보리심<sup>34)</sup>에 통달한다면, 부모에 의해서 태  
어난 몸으로 빠르게 대각위<sup>35)</sup>를 증득한다.’라고 한다.

依如是等教理證文成立此義.

이와 같은 교리의 증명글에 의해 이 뜻이 성립한다.

如是經論字義差別云何. 頌曰.

이와 같은 경론의 글의 의미의 차별[字義差別]은 무엇인가? 계송으로 말한다.

六大無礙常瑜伽 體	四種曼荼各不離 相
三密加持速疾顯 用	重重帝網名即身 無礙諸佛
육대 <sup>36)</sup> 는 무애 <sup>37)</sup> 하여 항상 유가이므로	體 <sup>38)</sup>
사중만다 <sup>39)</sup> 는 각각 떨어져있지 않는다.	相 <sup>40)</sup>

30) 龍樹(Nagārjuna; 150?-250?). 인도 대승불교의 한 종파인 중관학파의 창시자로서 진언밀교에서는 법을 부촉한 세 번째 조사이자 전법의 첫 번째 조사라고 한다.

31) 龍猛이 짓고 不空이 전했다고 전해지는 『金剛頂瑜伽中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論』(T.32)이다. 하지만 현재는 불공삼장 이후에 중국에서 찬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2) 『金剛頂瑜伽中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論』(T.32, 572c13-14): 唯眞言法中卽身成佛故是故說三摩地於諸教中闕而不言.

33)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소질(根機)에 응하여 가르침을 설하는 佛身.

34) 일반적으로는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한다. 깨달음(聖)과 우리들의 마음(俗)의 관련에 주목하는 대승 불교에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후세에 여러 가지로 해석되었다. 보다 깊은 의미에서는 ‘깨달음의 마음’이라고도 한다.

35) 위대한 覺者. 즉, 붓다를 지칭한다.

36) 地·水·火·風·空·識大의 6가지.

37) 장애받지 않고 융합되는 것.

38) 현상, 실제의 양 세계의 존재요소인 6대는 막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융합되어 있다.

39) 大曼荼羅·三昧耶曼荼羅·法曼荼羅·羯磨曼荼羅.

40) 4중 만다라는 종종 양상이 다른 진실의 상을 표현하고 있고, 그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삼밀<sup>41)</sup>가지<sup>42)</sup>하여 빠르게 나타내므로                    用<sup>43)</sup>  
 중중제망함을 즉신이라고 하고                                無礙<sup>44)</sup>

法然具足薩般若 法佛成佛            心數心王過刹塵 無數  
 各具五智無際智 輪圓                圓鏡力故實覺智 所申此四句明成佛一字  
 법연으로 삼바야<sup>45)</sup>를 구축하여                                法佛成佛<sup>46)</sup>  
 심수와 심왕<sup>47)</sup>, 찰진을 지나                                    無數<sup>48)</sup>  
 각각 5지<sup>49)</sup>와 무제지<sup>50)</sup>를 갖추며                            輪圓<sup>51)</sup>  
 원경력<sup>52)</sup>이므로 실각지<sup>53)</sup>이다.                                成佛<sup>54)</sup>

釋曰. 此二頌八句以歎即身成佛四字. 卽是四字含無邊義. 一切佛法不出此一句. 故略樹  
 兩頌顯無邊德.

해석하여 말한다. 이 2송 8구로 즉신성불의 4글자를 찬탄한다. 즉, 이 4자는 무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불법은 이 1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간략히 2송을 내세워 무  
 변의 공덕을 나타낸다.

- 
- 41) 신체 · 언어 · 마음이라는 3가지의 身人的인 일.
  - 42) 붓다의 부사의한 힘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 받는 측에서도 그것을 느끼는 신심이 필요하다.
  - 43) 붓다와 나의 신체와 언어, 마음의 삼중의 행위형태가 부사의한 움직임에 의해 감응하여 있기 때문에 빠르  
 게 깨달음의 세계가 현현된다.
  - 44) 모든 신체가 제석천이 지는 그물에 얽힌 보석과 같이 모든 것이 비취지는 것을 몸으로 안다(卽身)고 한다.
  - 45) sarvajñāna의 음사로서 있는 것을 아는 지혜(一切智)를 말한다. 공해의 해석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본  
 래 가지고 있는 지혜'의 의미가 강하다.
  - 46)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모두를 아는 지혜를 구축하고 있다.
  - 47) 心數는 마음의 작용, 心王은 마음의 體.
  - 48)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음(心王)과 마음의 작용(心數)가 무수하게 존재하고 있다.
  - 49) 대일여래가 지닌 一切智를 5가지로 열어 보여주었던 것. 法界體性智(진리를 그 본질로 하는 지혜) · 大圓  
 鏡智(거울과 같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지혜) · 平等性智(모든 것을 평등하게 아는 지혜) · 妙觀察智(모든 것을 잘  
 관찰하는 지혜) · 成所作智(모든 행위를 이룩한 지혜). 체계화된 밀교교학에서는 대일여래를 시작으로 하는  
 금강계 5불(비로자나불, 아축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에 각각 배당한다.
  - 50) 한 없이 광대하고 심원한 부처님의 지혜.
  - 51) 마음과 마음의 작용은 5종의 여래의 지혜와 제한이 없는 지혜가 포함되어 있다.
  - 52) 완전한 거울과 같이 모든 것을 비추어 보여주는 힘.
  - 53) 있는 그대로를 깨닫는 지혜.
  - 54) 그러한 지혜를 지녀 밝은 거울과 같이 모든 것을 비취주기 때문에 진실을 깨달은 것이 된다.

頌文分二. 初一頌歎即身二字. 次一頌歎成佛兩字. 初中又四. 初一句體二相三用四無礙. 後頌中有四. 初舉法佛成佛. 次表無數. 三顯輪圓. 後出所由.

계송의 글을 2가지로 나누면 처음 1송은 즉신의 2자를 찬탄하고, 다음 1송은 성불의 2자를 찬탄한다. 첫 송에 또한 4가지가 있다. 첫 송의 1구는 체, 2구는 상, 3구는 용, 4구는 무애이다. 뒷 송에는 4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법불의 성불을 들고, 다음으로는 무수를 표현하고, 세 번째에는 윤원<sup>55)</sup>을 나타내고, 마지막으로는 이유를 드러낸다.

謂六大者五大及識. 大日經所謂. 我覺本不生. 出過語言道. 諸過得解脫. 遠離於因緣. 知空等虛空. 是其義也. 彼種子眞言曰 **𑖀𑖄𑖅𑖆𑖇𑖈𑖉**.

육대라는 것은 오대와 식이다. 『대일경』에서 말하는 “나는 본래 불생임을 깨닫고 언어의 길을 떠나서 모든 과오<sup>56)</sup>에서 해탈하는 것을 얻어 인연을 떠나 공은 허공과 같다는 것을 안다.”<sup>57)</sup> 이것이 그 뜻이다. 그 종자<sup>58)</sup>진언은 아비라훔캄훔<sup>59)</sup>이라고 한다.

爲阿字諸法本不生義者即是地大. 縛字離言說謂之水大. 清淨無垢塵者是則囉字火大也. 因業不可得者訶字門風大也. 等虛空者欠字字相即空大也. 我覺者識大. 因位名識果位謂智. 智即覺故. 梵音沒馱冒地 **𑖀𑖄𑖅𑖆𑖇𑖈𑖉** 一字之轉沒馱名覺冒地曰智. 故諸經中所謂三藐三冒地者. 古翻云遍知新譯等覺. 覺知義相涉故. 此經號識爲覺者從強得名. 因果之別本末異而已. 經偈約五佛三摩地作如是說.

‘아지는 제법은 본래 불생이다(阿字諸法本不生<sup>60)</sup>)’의 뜻은 지대(地大)이다. ‘바지는 언설을 떠난다(縛字離言說<sup>61)</sup>)’는 수대(水大)이다.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다(清淨無垢塵<sup>62)</sup>)’는 것은 라자 즉 화대(火大)이다. ‘인과 업을 얻을 수 없다(因業不可得<sup>63)</sup>)’는 것은 가자문(訶

55) 완전한 원형. 완전한 도형을 갖춘 만다라를 가리키는 것이 많다.  
 56) 모든 과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分別妄想을 뜻한다.  
 57)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T.18, 9b16-18): 我覺本不生 出過語言道 諸過得解脫 遠離於因緣 知空等虛空.  
 58) 불보살 등의 존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범어.  
 59) 산스크리트어 a vi ra hūṃ khaṃ hūṃ을 말한다. 이 글자는 『大日經』 등에 설해진 大動用三摩地의 진언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차례대로 地·水·火·風·空의 五大를 표현한다. 마지막의 훔은 금강계 5불 가운데 阿闍如來를 상징하는데 아축불은 五蘊 가운데 識蘊을 표현한다.  
 60) 모든 것은 본래 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것(ādyanutpanna)을 첫 글자 阿로 상징한다. 밀교교학에서는 地大에 배대한다.  
 61) 깨달음의 경지는 言說(vāc)을 떠나 있는 것을 첫 글자 囉(va)으로 상징한다. 水(vāri)대와 같은 위치이다.  
 62) 깨달음의 경지는 垢塵(rajas)이 아닌 것을 첫 글자 囉(ra)로 상징한다. 火(rajas)대와 같은 위치이다.  
 63) 깨달음의 경지는 因(hetu) 등의 작용을 떠나 있는 것을 첫 글자 訶(ha)로 상징한다. 언어적 근거는 불명확하지만 風大이다.



字門)인 풍대(風大)이다. ‘허공과 같대(等虛空<sup>64</sup>)’는 것은 흠(欠)자로서 글자의 모양은 공대(空大)이다. 아견은 식대이다. 인위에서는 식이라고 하고, 과위에서는 지라고 한다. 범음인 몰타모지<sup>65</sup>는 한 글자가 바뀐 것<sup>66</sup>이다. 몰타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고 모지는 지혜를 말한다. 따라서 모든 경전에서 말하는 삼막삼모지<sup>67</sup>는 예전에는 변지라고 번역하였고, 신역에서는 등각이라고 번역한다. 각과 지의 의미는 서로 접수하기 때문이다. “이경 <『대일경』>에서 식을 각이라고 한다.”는 것은 강하게 좇아 이름을 얻기 때문이다. 인과의 다름과 본말의 다름일 뿐이지 이경의 계승에는 오불<sup>68</sup>의 삼마지를 따라 만들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다.

又金剛頂經云. 諸法本不生. 自性離言說. 清淨無垢染. 因業等虛空. 此亦同大日經. 諸法者謂諸心法. 心王心數其數無量. 故曰諸心識名異義通. 故天親等以三界唯心成立唯識義. 自餘同上說.

또한 『금강정경』에서 말하기를 “제법은 본래부터 태어나지 않는다. 자성은 언설을 떠난 것이다. 청정하여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아서 인과 업은 허공과 같다.<sup>69</sup>”고 한다. 이것은 또한 『대일경』과 같다. 제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모든 심법이다. 심왕과 심수는 그 수가 끝이 없기 때문에 모든이라고 한다. 심식은 이름은 다르지만 뜻은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 등은 삼계유심<sup>70</sup>으로 유식의 뜻<sup>71</sup>을 성립한다. 나머지는 위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又大日經云. 我即同心位. 一切處自在. 普遍於種種. 有情及非情. ㄱ 阿字第一命. ㄴ 囉字名爲水. ㄷ 囉字名爲火. ㄹ 佉字名爲風. ㅁ 佉字同虛空. 此經文初句我即同心位者. 謂心則識智也. 後五句即是五大. 中三句者表六大自在用無礙德. 般若經及瓔珞經等亦說六大義.

64) 깨달음의 경지는 虛空(kha)와 같은 것을 첫 글자 佉(kha)로 상징한다. 空大를 나타낸다.  
 65) buddha와 bodhi. 어근은 모두 budh이지만, 붓다는 과거수동분사로서 ‘깨달은 것’, 보디는 여성명사로서 ‘깨달음’을 표현한다.  
 66) 같은 어근인 budh에서 파생한 것이라는 뜻.  
 67) samyaksambodhi. 正等正覺이라고 번역한다.  
 68) 밀교의 기본이 되는 五體의 如來로써, 통상적으로 大日·阿闍·寶生·阿彌陀·不空成就의 금강계 5불을 말한다.  
 69) 『金剛頂經瑜伽修習毘盧遮那三摩地法』(T.18, 331a17-18): 諸法本不生 自性離言說 清淨無垢染 因業等虛空.  
 70) 欲界·色界·無色界가 단지 마음에서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唯識思想.  
 71) 외적존재는 실재하지 않고 모두 마음에 투영되어 성립한다는 사상.

또한 『대일경』에서 말하기를 “나는 마음의 위치와 같아서 모든 곳에 자재한다. 모든 것에 널리 있어서 유정<sup>72)</sup>과 비정<sup>73)</sup>에 이른다. 아지는 첫 번째 목숨<sup>74)</sup>이요 바지는 수라고 하고, 라지는 화라고 하며, 가지는 허공과 같다.<sup>75)</sup>”라고 한다. 이 경문의 첫구인 “나는 마음의 위치와 같다(我即同心位)”는 것은 마음이 식지(識智)<sup>76)</sup>라는 것이다. 뒤의 5구는 오대이다. 가운데의 3구는 육대가 자재한 쓰임이어서 의심이 없는 뜻을 표현한다. 『반야경』과 『영락경』 등에도 육대의 의미가 설해져 있다.

如是六大能造一切佛及一切衆生器界等四種法身三種世間。故大日尊說如來發生偈云。  
 이와 같이 육대는 능히 일체의 불과 일체중생·기계(器界)<sup>77)</sup> 등의 사중법신<sup>78)</sup>과 삼중세간<sup>79)</sup>을 만든다. 그러므로 대일존의 여래발생의 계승을 설한다.

能生隨類形	諸法與法相
諸佛與聲聞	救世因緣覺
勤勇菩薩衆	及仁尊亦然
衆生器世界	次第而成立
生住等諸法	常恒如是生

능히 유형과 모습을 따라 모든 법과 모든 모습  
 모든 부처와 성문<sup>80)</sup>과 구세의 인연각<sup>81)</sup>과

72) 생명이 있는 것으로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73) 무생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세간(물질세계)을 지칭한다.  
 74) 가장 중요한 것.  
 75)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T.18, 38b27-c2): 我即同心位 一切處自在 普遍於種種 有情及非情 阿字第一命 囉字名爲水 囉字名爲火 禰字名忿怒 佉字同虛空.  
 76) 현상적인 인식작용과 그것이 질적으로 전환하여 부처의 지혜가 된 것.  
 77) 器世間. 중생이 거주하는 세계를 지칭함.  
 78) 대승불교에서는 法·報·化 혹은 法·應·化의 삼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밀교에서는 4종을 설하여 모두 법신의 표현으로 한다. 즉, 自性法身(본체로서의 法身)·受用法身(깨달음을 자신이 깨닫고 그렇게 깨달은 법신)·變化法身(여러가지 모습으로 변하여 구제하는 법신)·等流法身(모든 것과 같은 모습을 갖고 나타나는 법신).  
 79) 삼중세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설이 있다. 『大智度論』에서는 假名(衆生)世間·五陰(五蘊)世間·國土(器)世間으로 나누고, 『華嚴經疏』에서는 器世間·衆生世間·智正覺世間(부처의 세계)의 3가지를 들고 있다. 본서에서는 『화엄경소』의 설을 채용하고 있다.  
 80) śrāvaka의 번역어로서 석존의 직제자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를 말한다.  
 81) pratyeka-buddha의 번역어로서 緣覺 혹은 獨覺이라고도 한다.

용기내어 힘쓰는 보살의 무리를 일으킨다. 인존(人尊)<sup>82</sup>도 역시 그러하다.  
 중생과 기세간과 순서를 따라 성립한  
 생왕(生住)<sup>83</sup> 등의 모든 법도 항상 이와 같이 일어난다.

此偈顯現何義. 謂表六大能生四種法身曼荼羅及三種世間. 謂諸法者心法. 法相者色法.  
 復次諸法舉通名. 法相者顯差別. 故下句云諸佛聲聞緣覺菩薩衆生器世間次第而成立.

이 계송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가? 말하자면, 육대는 사중법신과 만다라와 삼중  
 세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법이라는 것은 심법이고, 법상은 색법이다.  
 다음으로 제법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법상과의 차별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아래의 구  
 에서 “제불과 성문, 연가, 보살, 중생, 기세간이 차례로 성립한다.”라고 한다.

復次諸法者法曼荼羅. 法相者三昧耶身. 諸佛乃至衆生者大曼荼羅身. 器世界者表所依  
 土. 此器界者三昧耶曼荼羅之總名也. 復次佛菩薩二乘者表智正覺世間. 衆生者衆生世  
 間. 器世界者即是器世間也. 復次能生者六大也. 隨類形者所生法也. 卽四種法身三種世  
 間是也.

다음으로 제법이라는 것은 법만다라<sup>84</sup>, 법상이라는 것은 삼매야신<sup>85</sup>이다. 제불 내지  
 중생이라는 것은 대만다라신<sup>86</sup>이다. 기세간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땅<sup>87</sup>을 나타낸다. 이  
 기계(器界)라는 것은 삼매야만다라의 모든 이름이다. 또한 다음으로 불·보살·이승이  
 라는 것은 지정각세간(智正覺世間)<sup>88</sup>을 나타낸다.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세간이다. 기세  
 계라는 것은 기세간이다. 또한 다음으로 생겨나게 하는 것(能生)은 육대이다. 유형을 따  
 른다는 것은 생겨나는 것(所生)의 법이다. 즉, 사중법신과 삼중세간이 이것이다.

故次又言. 祕密主有造曼荼羅聖尊分位種子標幟. 汝當諦聽. 吾今演說. 卽說偈曰. 眞言者  
 圓壇. 先置於自體. 自足而至臍. 成大金剛輪. 從此而至心. 當思惟水輪. 水輪上火輪. 火  
 輪上風輪.

82) 인간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써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한다.  
 83) 세간의 전개를 나타낸 生(生成)·住(止住)·異(變異)·滅(消滅)의 4가지 모습.  
 84) 諸尊을 상징하는 種子에 의해 표현된 만다라.  
 85) 諸尊을 표시하는 持物과 印象에 의해 표현된 만다라.  
 86) 諸尊의 구체적인 모습과 형태를 말하는 것 같다.  
 87) 의지처가 되는 국토세계.  
 88) 三種世間の 하나. 부처의 세계.

따라서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밀주(秘金剛秘密主)여, 만다라의 성스러운 존격의 배치된 위치와 종자와 표식<sup>89)</sup>을 만드는 것이 있다. 너는 분명히 들어야만 한다. 내가 지금 연설한다. 즉, 계송을 설하여 말하기를<sup>90)</sup> ‘진언자는 원단<sup>91)</sup>을 우선 스스로의 몸에 두고, 발에서 배꼽에 이르기까지 대금강륜<sup>92)</sup>을 이루고, 여기에서 마음에 이르기까지 당연히 수륜을 사유하며, 수륜의 위에 화륜이 있고, 화륜 위에 풍륜이 있다.’”고 한다.

謂金剛輪者阿字. 阿字即地. 水火風如文而可知. 圓壇者空. 眞言者者心大也. 長行中所謂聖尊者大身. 種子者法身. 幟幟者三昧耶身. 羯磨身者三身各各具之. 具說者經文廣說之臨文可知.

말하자면 금강륜이라는 것은 아자이다. 아지는 지이다. 수·화·풍은 글귀와 같이 알 수 있다. 원단이라는 것은 공이다. 진언자라는 것은 삼대이다. 장행에서 말하는 경우의 성스러운 존격이라는 것은 대신(大身)<sup>93)</sup>이다. 종자라는 것은 법신<sup>94)</sup>이다. 표식이라는 것은 삼매야신<sup>95)</sup>이다. 갈마신<sup>96)</sup>이라는 것은 삼신이 각각 갖춘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경문에 널리 이것을 설한다. 글을 따르면 알 수 있다.

又曰. 大日尊言. 金剛手有諸如來意生作業喜戲行舞廣演品類. 攝持四界安住心王等同虛空. 成就廣大見非見果. 出生一切聲聞辟支佛諸菩薩位. 此文顯現何義. 謂表六大能生一切. 何以得知. 謂心王者識大. 攝持四界者四大. 等虛空者空大. 此六大能生. 見非見者欲色界無色界. 下如文. 卽是所生法.

또한 대일존의 말을 말한다면, “금강수는 모든 여래의 뜻에 의해 생겨 업의 기쁨業

89) 불보살 등의 존격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尊格의 움직임과 서원을 표현하는 持物이 쓰이는 것이 많다.

90)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T.18, 31a21-28): 祕密主有造漫荼羅聖尊分位種子幟幟汝當諦聽善思念之吾今演說持金剛祕密主言如是世尊願樂欲聞時薄伽梵以偈頌曰 眞言者圓壇 先置於自體 自足而至臍 成大金剛輪 從此而至心 當思惟水輪 水輪上火輪 火輪上風輪.

91) 圓輪과 같은 것으로서 만다라를 말한다.

92) 금강석보다 견고한 것으로서 地輪을 나타낸다.

93) 大曼荼羅身의 약칭. 모습과 형태로 표현한 만다라.

94) 이 경우는 三身論에서 말하는 법신이 아니고 法曼荼羅身을 가리킨다. 종자로 표현한 만다라.

95) 三昧耶曼荼羅身. 持物·印相 등의 상징물로 표현한 만다라.

96) 羯磨曼荼羅身. 갈마라는 것은 행위와 작법을 의미하는 범어 kaman의 음사로서 갈마만다라에는 2종류가 있다. 첫째, 諸尊의 威儀事業을 표현하는 만다라를 지칭하는 경우. 둘째, 尊像을 捏鑄刻造한 彫像, 鑄像 등의 입체만다라를 지칭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喜戲의 행무(行舞)<sup>97)</sup>를 만드는 것이 있다. 널리 품류를 말한다던지. 사계<sup>98)</sup>를 섭수하여 지녀 심왕에 안주하여 허공과 같다. 크고 넓게 견과 비견의 과를 성취하여 일체 성문과 벽지불, 모든 보살의 계위를 태어나게 한다.<sup>99)</sup>”라고 한다. 이 글은 어떠한 의미인가를 나타내는가? 말하자면 육대가 일체를 생겨나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무엇을 통해 무엇을 얻는가? 말하자면 심왕이란 식대이다. 사계를 섭수하여 지닌다는 것은 사대이다. 허공과 같다는 것은 공대이다. 이 육대는 생겨나게 한다. 견과 비견이라는 것은 육계 · 색계 · 무색계이다. 아래는 문장과 같다. 즉 이것이 생겨나는 법이다.

如此經文皆以六大爲能生. 以四法身三世間爲所生. 此所生法上達法身下及六道. 雖羸細有隔大小有差. 然猶不出六大. 故佛說六大爲法界體性.

이와 같은 경문은 모두 육대가 생겨나게 한다고 하고, 사법신 · 삼세간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생겨나는 법은 위로는 법신에 이르고 아래로는 육도에 이르러 거칠고 세밀한 차이가 있고,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아직 육대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처님은 육대를 설하여 법계체성이라고 말씀하셨다.

諸顯教中以四大等爲非情. 密教則說此爲如來三摩耶身. 四大等不離心大. 心色雖異其性即同. 色即心心即色無障無礙. 智即境境即智. 智即理理即智無礙自在. 雖有能所二生都絕能所. 法爾道理有何造作. 能所等名皆是密號. 執常途淺略義不可作種種戲論.

모든 현교에서는 사대 등을 비정(非情)이라고 한다. 밀교에서는 이것을 여래의 삼매야신이라고 한다. 사대 등은 심대를 떠나지 않는다. 심색과 다르다고 해도 그 본성은 같다. 색이 심이요 심이 색이니 장애가 없다. 지혜는 경계이고 경계는 지혜이며, 지혜는 이치이고 이치는 지혜이니 걸림없이 자재하다. 비록 능소의 이생이 있어서 능소를 끊는다고 해도 법은 도리를 떠나있으니 어찌 조작할 수 있겠는가? 능과 소 등의 이름은 모두 이 비밀스러운 이름이다. 일반상식의 얕고 가벼운 의미로서 가지가지의 회론<sup>100)</sup>을 만들기 때문이다.

97) 부처의 자유로운 마음에서 나타난 변화무쌍한 움직임.

98)四大와 같음.

99)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T.18, 19c22-25): 金剛手有諸如來意生作業戲行舞廣演品類攝持四界安住心王等同虛空成就廣大見非見果出生一切聲聞及辟支佛諸菩薩位.

100) prapañca의 음사.

如是六大法界體性所成之身. 無障無礙互相涉入相應. 常住不變同住實際. 故頌曰六大無礙常瑜伽. 解曰. 無礙者涉入自在義. 常者不動不壞等義. 瑜伽者翻云相應. 相應涉入即是即身成佛義.

이와 같이 육대법계체성으로 이루어진 몸은 무장무애하여 상호 섭입하고 상응하여 상주불변하여 같은 실체에 머문다. 따라서 계송에 ‘육대는 무애하여 항상 유가이다.’라고 말한다. 무애는 섭입자재의 뜻이다. 상은 움직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등의 의미이다. 유가는 상응이라고 번역한다. 상응섭입이 이 즉신성불의 의미이다.

四種曼荼各不離者. 大日經說. 一切如來有三種祕密身. 謂字印形像.

‘사중만다는 각각 떨어져 있지 않는다.’는 것은 『대일경』에서 설하는 “일체여래에게 3종의 비밀신이 있다. 말하자면 자種子·인印相·형상尊形이다.<sup>101)</sup>”이다.

字者法曼荼羅. 印謂種種標幟即三昧耶曼荼羅. 形者相好具足身即大曼荼羅. 此三種身各具威儀事業. 是名羯磨曼荼羅. 是名四種曼荼羅.

자라는 것은 법만다라이다. 인은 말하자면 갖가지의 표식. 즉, 삼매야만다라이다. 형이라는 것은 상호구조의 신. 즉, 대만다라이다. 이 3종신은 각각 위외와 사업<sup>102)</sup>을 갖추고, 이것을 갈마만다라라고 이름 한다. 이것이 사중만다라이다.

若依金剛頂經說. 四種曼荼羅者. 一大曼荼羅. 謂一一佛菩薩相好身. 又綵畫其形像名大曼荼羅. 又以五相成本尊瑜伽. 又名大智印. 二三昧耶曼荼羅. 即所持標幟刀劍輪寶金剛蓮等類是也. 若畫其像亦是也. 又以二手和合金剛縛發生印是. 亦名三昧耶智印. 三法曼荼羅. 本尊種子眞言. 若其種子字各書本位是. 又法身三摩地及一切契經文義等皆是. 亦名法智印. 四羯磨曼荼羅即諸佛菩薩等種種威儀事業等. 若鑄若埋等亦是. 亦名羯磨智印.

만약 『금강정경』의 설에 따른다면<sup>103)</sup> 사중만다라<sup>104)</sup>의 첫째는 대만다라이다. 말하자

101)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T.18, 44a16-17): 佛言祕密主諸尊有三種身所謂字印形像.

102) 완성(悉地)의 경지를 보이는 작용(『大日經』「持誦法則品」(T.18, 53a) 참조)

103) 여기에서 설하는 사중만다라의 설은 금강정경계통에서는 『般若波羅蜜多理趣釋』(T.19, 609b)와 『都部陀羅尼目』(T.18, 898c) 등에 보인다.

104) 4종 만다라라는 것은 주로 『금강정경』계 통의 경론에서 설해지는 4종의 만다라 표현이다. 『初會金剛頂經』 범본에는 대만다라(mahāmaṇḍala), 비밀만다라(guhyamaṇḍala), 법만다라(dhamamaṇḍala), 갈마만다라(karmamaṇḍala)라고 되어있고, 공해가 주로 사용하는 대만다라·삼매야만다라·법만다라·갈마만다라

면 개개의 불보살의 상호의 신이다. 또한 그 형상을 채화하는 것을 대만다라라고 한다. 또한 오상<sup>105</sup>을 지녀 본존의 유가를 성취한다. 또한 대지인이라고 한다. 둘째는 삼매야만다라이다. 즉, 지니고 있는 표식이 도검<sup>106</sup>·윤보·금강<sup>107</sup>·연화 등의 종류가 이것이다. 만약 그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도 또한 그러하다. 또한 두 손으로 화합하여 금강박<sup>108</sup>을 발생하여 인을 이루는 이것이다. 또한 삼매야지인이라고도 한다. 셋째는 법만다라이다. 본존의 종자인이다. 만약 그 종자의 글자를 각각 본위라고 쓴다면 그것이다. 또한 법신의 삼마지<sup>109</sup>와 일체계경의 글자의 뜻 등 모두가 이것이다. 또한 법지인<sup>110</sup>이라고도 한다. 넷째는 갈마만다라이다. 즉, 모든 불보살 등의 갖가지의 위와 사업 혹은 주(鑄)<sup>111</sup> 또는 날(捏)<sup>112</sup> 등도 또한 이것이다. 또한 갈마지인이라고 한다.

如是四種曼荼羅四種智印其數無量。一一量同虛空。彼不離此此不離彼。猶如空光無礙不逆。故云四種曼荼羅各不離。不離即是即義

이와 같이 사종만다·사종지인<sup>113</sup>은 그 수가 무량하다. 하나하나를 헤아리면 허공과 같다. 저것은 이것을 떠나지 않고, 이것은 저것을 떠나지 않는다. 마치 공광(空光)이 무

라는 4종만다라는 不空의 『大樂金剛不空眞實三昧耶經般若波羅蜜多理趣釋』(약칭 『般若理趣釋』)을 기반으로 한다. 4종 만다라의 내용을 정리하면 대만다라(존격의 형상), 삼매야만다라(제존의 표식(持物)·印相), 법만다라(제존의 종자인), 갈마만다라(제존의 威儀, 事業 혹은 鑄像·塑像 등)가 된다. 즉, 대만다라·삼매야만다라·법만다라로 전개하는 과정에는 일종의 상징화의 프로세스를 읽을 수 있다. 또한 갈마만다라에는 2종의 구별이 있고, 앞의 3만다라를 포함하여 모두 제존의 행위·작용을 표현하는 경우와 구체적으로 주상과 소상을 병립한 입체만다라를 가르키는 경우가 있다. 전통적인 교학에서는 전자를 通三羯磨, 후자를 別體羯磨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秘藏記』에는 ‘첫째는 대만다라, 오대이다. 말하자면 繪像의 형체 등이 된다. 높고 넓은 의미이다. 둘째는 삼매야만다라, 존 등이 지니고 있는 기물과 인계가 된다. 평등의 의미이다. 셋째는 법만다라, 종자이다. 즉, 이것을 말하면 법신의 軌持의 의미이다. 넷째는 갈마만다라, 위이다. 말하자면 木像과 捏 등이다. 작업의 의미이다.’라고 설하여 내용적으로는 거의 다르지 않다고 한다.

- 105) 좁은 의미의 『金剛頂經』인 『初會金剛頂經』에 설해진 5단계의 成佛觀想法. 通達菩提心·修菩提心·成金剛心·証金剛身·佛身圓滿에서 이룬다. 일반적으로는 五相成身觀이라고 한다.
- 106) 도검의 위력으로 밀교에서는 修法壇에서 결계의 역할을 한다.
- 107) 금강저. 밀교에서 특히 중시하는 것으로 보리심 등의 많은 중요교리와 아축여래 등 주요한 존격이 금강저를 지니고 있다.
- 108) 外縛이라고 해도 좋다. 좌우 양손의 다섯손가락을 함께 모아 손가락을 손의 甲측으로 내는 印契.
- 109) 법신불의 경지.
- 110) 가르치는 지혜로서 種子 등의 문자에 의해 표현된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한다.
- 111) 쇠로 만든 불상.
- 112) 塑像 등의 흙으로 만든 불상.
- 113) 『初會金剛頂經』에 설해진 大印(māha-mudrā), 三昧耶印(samayamudrā), 法印(dharmamudrā), 羯磨印(karmamudrā)의 4종.

애하여 바뀌지 않는 것과 같다. 따라서 ‘사중만다는 각각 떠나지 않는다.’라고 한다. 불리는 이와 같은 의미이다.

三密加持速疾顯者。謂三密者一身密二語密三心密。法佛三密甚深微細等覺十地不能見聞故曰密。一一尊等具刹塵三密。互相加入彼此攝持。衆生三密亦復如是。故名三密加持。

‘삼밀가지하여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삼밀이라는 것은 첫째는 신밀, 둘째는 어밀, 셋째는 심밀이다. 법불의 삼밀은 매우 깊고 미세하여 등각과 십지도 견문하는 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밀이라고 부른다. 하나하나의 존은 같은 찰진의 삼밀을 구축하여 상호 가입하여 서로서로 섭지한다. 중생의 삼밀도 또한 이와 같다. 따라서 삼밀가지라고 한다.

若有眞言行人觀察此義。手作印契口誦眞言心住三摩地。三密相應加持故早得大悉地。故經云。此毘盧遮那三字密言共一字無量。適以印密言印心成鏡智速獲菩提心金剛堅固體。印額應當知成平等性智速獲灌頂地福聚莊嚴身。以密語印喉時成妙觀察智即能轉法輪得佛智慧身。誦密言印頂成所作智證佛變化身能伏難調者。由此印密言加持自身成法界體性智毘盧遮那佛虛空法界身。

만약 진언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의미를 관찰하여 손에 인계를 만들고 입으로 진언을 암송하여 마음이 삼마지에 머문다면, 삼밀상응하여 가지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실지를 얻는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이 비로자나불의 3글자의 비밀스러운 말<sup>114)</sup>과 함께 한글자로 무량하다. 따라서 인·비밀스러운 말을 따라서 마음을 인한다면 경지<sup>115)</sup>를 이루고, 속히 보제심금강견고의 체를 획득한다. 이마(額)를 인한다면 알다시피 평등성지<sup>116)</sup>를 얻어 빨리 관정지<sup>117)</sup>의 복취장엄<sup>118)</sup>의 신을 획득한다. 비밀스러운 언어로 목구멍을 인하는 경우 묘관찰지<sup>119)</sup>를 이루어 범륜<sup>120)</sup>을 굴러 부처의 지혜신을 얻는다. 비밀스

114) 三字의 비밀스러운 말로써 om, bhūh, kham을 말한다.

115) 大圓鏡智. 모든 것을 밝기위해 비추어 나타내는 지혜. 후기의 교학에서는 제8식인 아뢰야식이 전환하여 연성하는 佛智라고 한다.

116) 모든 것을 평등하게 아는 지혜. 제7 말라식(자아의식)이 전환하여 얻어지는 부처의 지혜.

117) 관정이라는 것은 고대 인도의 제왕이 즉위할 때 四海의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을 불교적으로 재편한 것으로서, 佛位에 오르는 증명의식으로 되었다. 관정지라는 것은 관정을 받는 것에 이르는 경지를 가리킨다.

118) 복덕이 모여 있는 것에 의해 장엄된 것.

119) 모든 것을 올바르게 관찰하는 지혜. 제6 의식이 전환하여 얻는 부처의 지혜.

120) 부처의 가르침은 모든 미혹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 그것을 輪寶에 말한 것. 범륜을 굴린다는 것은 부처가 가르침을 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初會金剛頂經』에서는 진범륜은 아미타여래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 많



러운 말을 독송하여 정수리(頂)를 인한다면 성소작지<sup>121)</sup>를 이루어 부처의 변화신<sup>122)</sup>을 증득하여 능히 난조자<sup>123)</sup>를 조복한다. 이 인과 비밀스러운 말에 의해 자기의 몸을 가지한다면 법계체성지<sup>124)</sup> 비로자나불의 허공법계신<sup>125)</sup>를 이룬다.<sup>126)</sup>” 고 한다.

又云.入法身眞如觀一緣一相平等猶如虛空.若能專注無間修習.則入初地頓集一大阿僧祇劫福智資糧.由衆多如來所加持故.乃至十地等覺妙覺具薩般若.自他平等與一切如來法身共同.常以無緣大悲利樂無邊有情作大佛事自此下儀軌之.

또한 말하기를 “법신진여관<sup>127)</sup>에 들어가 일연일상평등<sup>128)</sup>한 것으로 오히려 허공과 같다. 만약 전주(專注)하여 무간에 수습할 수 있다면, 초지에 들어가 갑자기 일대이승지겁의 복지자량<sup>129)</sup>을 모은다. 많은 수의 여래에게서 가지되기 때문에(가지를 받기 때문에) 십지·등각·묘각에 이르러 살바야를 갖추고, 자타평등으로 일체여래의 법신과 함께 동일하게 항상 무연의 대비<sup>130)</sup>로써 무변의 유정을 이익 되고 즐겁게 하며, 대불사를 만든다.<sup>131)</sup>” 고 한다.

又云.若依毘盧遮那佛自受用身所說內證自覺聖智法.及大普賢金剛薩埵他受用身智.則於現生遇逢曼荼羅阿闍梨得入曼荼羅.爲具足羯磨以普賢三摩地引入金剛薩埵入其身中.猶加持威德力故.於須臾頃當證無量三昧耶無量陀羅尼門.以不思議法能變易弟子俱生我執種子.應時集得身中一大阿僧祇劫所集福德智慧.則爲生在佛家.其人從一

다.

- 121) 모든 행위를 성취한 지혜. 안이비설신의 전5식이 전환하여 얻어진 부처의 지혜.  
 122) 구제를 위해 중생에게 나타난 불신.  
 123) 가르침에 들어가기 어려운자.  
 124) 깨달음의 당체를 본성으로 하는 지혜. 제9식인 阿摩羅(淸淨無垢)識이 전환하여 얻어진 지혜.  
 125) 허공과 같이 광대무변한 깨달음의 當體.  
 126) 『金剛頂經一字頂輪王瑜伽一切時處念誦成佛儀軌』(T.19, 322c3-14): 此毘盧遮那 佛三字密言 共一字無異 適以印密言 印心成鏡智 速獲菩提心 金剛堅固體 印額應當知 成平等性智 速獲灌頂地 福聚莊嚴身 密語印口時 成妙觀察智 卽能轉法輪 得佛智慧身 誦密言印頂 成成所作智 證佛變化身 能伏難調者 由此印密言 加持自身成 法界體性智 毘盧遮那佛 虛空法界身.  
 127) 법신을 진리로 관상하는 것.  
 128)緣은 能緣으로서 주관, 相은 所緣으로서 객관을 가르킨다.  
 129) 보살이 수행과정에서 쌓은 행위와 공덕.  
 130) 개별적인 분별이 없는 보편적인 자비.  
 131) 『成就妙法蓮華經王瑜伽觀智儀軌』(T.19, 602a5-10): 則入法身眞如觀一緣一相平等猶如虛空若能專注無間修習現生則入初地頓集一大阿僧祇劫福智資糧由衆多如來所加持故乃至十地等覺妙覺具薩婆若自他平等與一切如來法身共同常以無緣大悲利樂無邊有情作大佛事.

切如來心生。從佛口生從佛法生從法化生得佛法財。法財者謂三密菩提心教法。【此明初授菩提心戒時阿闍梨加持方便所得之益】纔見曼荼羅能須臾頃淨信。以歡喜心瞻觀故。則於阿賴耶識中種金剛界種子。【此文明初見曼荼羅海會諸尊所得益】具受灌頂受職金剛名號。從此已後受得廣大甚深不思議法超越二乘十地。此大金剛薩埵五密瑜伽法門。於四時行住坐臥四威儀之中無間作意修習。於見聞覺知境界人法二空執悉皆平等。現生證得初地漸次昇進。由修五密於涅槃生死不染不著。於無邊五趣生死廣作利樂。分身百億遊諸趣中。成就有情令證金剛薩埵位。【此明依儀軌法則修行之時不思議法益】

또한 말하기를 “만약 비로자나불 자수용신이 말한 스스로 깨달은 자각성지<sup>132)</sup>의 법과 대보현<sup>133)</sup>, 금강살타<sup>134)</sup>의 타수용신의 지혜에 의한다면, 현생에서 만다라아사리<sup>135)</sup>를 만나 만다라에 들어가는 것을 얻는다. 말하자면 갈마<sup>136)</sup>를 구축하고 보현삼마지<sup>137)</sup>로서 금강살타를 끌어들여 그 몸 안에 들어간다. 오히려 가지의 위덕력에 의해서 한 순간에 須臾頃에 무량한 삼매야<sup>138)</sup>와 무량한 다라니문을 증명할 수 있다. 부사의한 법으로 능히 제자의 구생아집<sup>139)</sup>의 종자를 바꾸어 시간에 따라 몸 가운데 일대이승지겁에 모여 있는 복덕과 지혜를 모아 얻어 불가에 내어나 머무는 것이다. 그 사람은 일체여래의 마음에서 태어나고, 부처의 입에서 태어나고, 부처의 법에서 태어나고, 부처의 법재를 얻는다. 법재리는 것은 말하자면 삼밀의 보리심의 교법이다. 【이것은 처음 보리심계<sup>140)</sup>를 받을 때 아사리의 가지방편에 의해 얻는 경우의 이익을 밝힌다.】 겨우 만다라를 본다면 능히 일순간에 깨끗하게 믿는다. 환희심을 지녀 우러러보기(瞻觀) 때문에 아뢰야식 가운데에서 금강계<sup>141)</sup>의 종자를 얻는다고 한다. 【이 글은 처음 만다라해회<sup>142)</sup>의 제존을 보아 얻는 경우의 이익을 밝힌다.】 관정수직<sup>143)</sup>의 금강명호를 갖춘다. 이러한 이후 광대심심

- 
- 132) 스스로만이 알 수 있는 성스러운 부처님의 지혜.
  - 133) 『금강정경』 계통의 경론에서는 대일여래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134) 『금강정경』 계통의 밀교에서는 대일여래의 인위적 존재를 밀교적 보살의 대표인 금강살타에게서 구한다.
  - 135) 밀교 수행자를 만다라에 이끌어들이어 지도하는 스승.
  - 136) 이 경우에는 수계에 필요한 행위작법을 말한다.
  - 137) 본래의 뜻은 ‘널리 현명하다’는 의미이지만, 교의적으로는 대자대비와 관련하여 완전한 자비의 경지를 뜻한다.
  - 138)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과 『大日經疏』에서는 삼마야에는 平等, 本誓, 除障, 驚覺의 4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근본적인 서원의 의미에 가깝다.
  - 139)俱生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갖추고 지닌 것으로서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이를 말한다.
  - 140)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보리심)을 중심 테마로 하는 계율.
  - 141) 『金剛頂經』에서 말하는 실재세계로서 그것을 만다라화 한 것이 금강계만다라이다.
  - 142) 다수의 尊格이 집합한 모임.
  - 143) 밀교의 免許皆傳이라고도 말하는 전법아사리의 위치(직위)를 받는 것을 말한다.

부사의의 법을 받아 얻어 이승·십지를 초월한다. 이 대금강살타오밀유가법문<sup>144)</sup>을 4시에 행주좌와의 4위의 가운데 무간에 작의하여 수습한다면 견문각지의 경계에 이르러 인·법 이공의 집착<sup>145)</sup> 모두 이미 평등하여 현생에 초지를 증득하여 점차 승진한다. 오밀을 수행하는 것에 의해 열반·생사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무변의 오취생사<sup>146)</sup>에 의해 널리 이로움과 즐거움을 만들어 몸을 백억으로 나누고, 제취 가운데에서 놀며, 유정을 성취하고, 금강살타의 위치를 증득한다. 【이것은 의례법칙에 의해 수행할 때의 부사의한 법의 이익을 밝힌다.】<sup>147)</sup>”고 한다.

又云. 三密金剛以爲增上緣能證毘盧遮那三身果位.

또한 “삼밀의 금강을 지녀 증상연으로 되어 능히 비로자나 삼신의 과위를 증득한다.<sup>148)</sup>”고 한다.

如是經等皆說此速疾力不思議神通三摩地法. 若有人不闕法則晝夜精進. 現身獲得五神通. 漸次修練不捨此身進入佛位. 具如經說. 依此義故曰三密加持速疾顯.

이와 같은 경 등은 모두 이미 속질력불사의신통의 삼마지의 법을 말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법칙을 어기지 않고 밤낮으로 정진한다면 현재의 몸으로 5신통을 획득한다. 점차 수련한다면 이 몸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 부처의 계위에 들어간다. 자세한 것은 경에 설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뜻에 따르기 때문에 ‘삼밀가지하여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한다.

144) 五密이라는 것은 보리심을 상징하는 금강살타와 그것을 포함한 欲·觸·愛·慢의 4보살을 말한다. 양자가 일체가 되어 煩惱卽菩提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대금강살타오밀유가의 법문이다.

145) 실체적 자아(人)도 존재의 구성요소(法)도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정적으로 생각해 집착하는 것.

146) 윤회전생하여 태어나 바뀐 지옥, 아귀, 축생, 인, 천의 5곳에서의 태어남과 죽음. 아수라를 더하여 六趣 또는六道라고 한다.

147) 『金剛頂瑜伽金剛薩埵五秘密修行念誦儀軌』(T.20, 535b26-cl6): 若依毘盧遮那佛自受用身所說內證自覺聖智法及大普賢金剛薩埵他受用身智則於現生遇逢茶羅阿闍梨得入曼荼羅爲具足羯磨以普賢三摩地引入金剛薩埵入其身中由加持威神力故於須臾頃當證無量三昧耶無量陀羅尼門以不思議法能變易弟子俱生我執法執種子應時集得身中一大阿僧祇劫所集福德智慧則爲生在佛家其人從一切如來心生從佛口生從佛法生從法化生得佛法財【法財謂三密菩提心教法】纔見曼荼羅能須臾頃淨信以歡喜心瞻靚故則於阿賴耶識中種金剛界種子具受灌頂受職金剛名號從此已後受得廣大甚深不思議法超越二乘十地此大金剛薩埵五密瑜伽法門於四時行住坐臥四儀之中無間作意修習於見聞覺知境界人法二執悉皆平等現生證得初地漸次昇進由修五密於涅槃生死不染不著於無邊五趣生死廣作利樂分身百億遊諸趣中成就有情令證金剛薩埵位.

148) 『金剛頂瑜伽金剛薩埵五秘密修行念誦儀軌』(T.20, 539a17-18): 大方便者三密金剛以爲增上緣能證毘盧遮那清淨三身果位.

加持者表如來大悲與衆生信心. 佛日之影現衆生心水日加. 行者心水能感佛日名持. 行者若能觀念此理趣. 三密相應故現身速疾顯現證得本有三身. 故名速疾顯. 常即時即日即身義亦如是

가지라는 것은 여래의 대비와 중생의 신심을 나타낸다. 부처라는 태양佛日의 모습, 중생의 심수에 나타나는 것을 가라고 하고, 수행자의 심수, 불일을 잘 느끼는 것을 지라고 한다. 만약 수행자가 이 이취를 관념한다면 삼밀상응하기 때문에 현재의 몸으로 빠르게 본유의 삼신을 현현하여 증득한다. 그래서 빠르게 나타난다(速疾顯)고 한다. 상의 즉시즉일과 같이 즉신의 뜻도 또한 이와 같다.

重重帝網名即身者. 是則舉譬喻以明諸尊刹塵三密圓融無礙. 帝網者因陀羅珠網也. 謂身者我身佛身衆生身是名身. 又有四種身. 言自性受用變化等流是名曰身. 又有三種字印形是也. 如是等身縱橫重重. 如鏡中影像燈光涉入. 彼身即是此身. 此身即是彼身. 佛身即是衆生身. 衆生身即是佛身. 不同而同不異而異. 故三等無礙眞言曰歸命句【如常】**阿三迷底哩三迷三昧曳莎呵**.

‘중중제망함은 즉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비유를 들어 제존의 찰진의 삼밀, 원융무애한 것을 밝힌 것이다. 제망이라는 것은 인다라주망이다. 신이라는 것은 아신·불신·중생신이니 이것을 신이라고 한다. 또한 4종의 신이 있는데 말하자면 자성·수용·변화·등류를 신이라고 한다. 또한 3종이 있는데 자·인·형이다. 거울에 등잔불이 영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 몸이 이 몸이고, 이 몸이 그 몸이고, 불신이 중생신이고, 중생신이 불신이 된다. 같지 않아서 같고 다르지 않아서 다르다. 따라서 삼등무애의 진언<sup>149)</sup>에서 귀명구를 아삼미(阿三迷; asame), 저리삼미(底哩三迷; trisame), 삼매예(三昧曳; samaye), 사가(莎呵; svāhā)<sup>150)</sup>라고 하는 것과 같다.

初句義云無等. 次云三等. 後句云三平等. 佛法僧是三. 身語意亦三. 心佛及衆生三也. 如是三法平等一也. 一而無量無量而一. 終不雜亂. 故曰重重帝網名即身.

첫 구의 뜻은 무등이라고 하고 다음은 삼등이라고 하며, 마지막 구는 삼평등이라고

149) 세 가지가 장애 없는 평등하게 되는 진언. 『大日經』 4권 「密印品」에서는 ‘一切如來入三昧耶遍一切無能障礙力無等三昧力明妃’라고 부르고 있다.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T.18, 24b10-11))

150) ‘같은 것이 되는 三平等한 본질을 지닌 자여 성취하리라.’라는 취지. 入佛三昧耶의 진언이라고도 하며 『大日經』에 실려져있는 3종의 삼매의 하나. 부처의 마음의 종자를 중생의 마음의 밭에 심어 生佛不二를 체득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일상현실의 불교에서는 장례시의 인도작법에 쓰인다.

한다. 불·법·승의 셋이다. 신·어·의 또는 심·불·중생의 셋이다. 이와 같은 삼범은 평등하여 하나이다. 하나로써 무량이고 무량해서 하나이다. 게다가 집란하지 않다. 따라서 '중중제망함을 즉신이라고 한다.'라고 한다.

法然具足薩般若者. 大日經云. 我一切本初. 號名世所依. 說法無等比. 本寂無有上. 謂我者大日尊自稱. 一切者舉無數. 本初者本來法然證得如是大自在一切法之本祖. 如來法身衆生本性. 同得此本來寂靜之理. 然衆生不覺不知. 故佛說此理趣覺悟衆生.

'법연으로 살바야를 구축한다.'라는 것은 『대일경』에 “나는 일체의 근본이며 시작(本初)이고 부르기를 세상의 의지할 곳(世所依)이라고 한다. 설법 등을 건줄 수 없고 본래 고요하여 위에 있는 것이 없다.<sup>151)</sup>”라고 한다. 아라는 것은 대일존을 스스로 칭하는 것이다. 일체라는 것은 무수를 든다. 본초라는 것은 본래 법연에서와 같이 대자재이고 일체법을 증득하는 본조이다. 여래의 법신과 중생의 본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본래적정의 이치를 얻는다. 그렇지만 중생은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는 이 도리(異趣)를 설하여 중생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又云. 諸樂欲因果者. 非彼愚夫能知眞言之相何以故. 說因非作者. 彼果則不生. 此因尙空云何而有果. 當知眞言果. 悉離於因果.

또한 말하기를 “갖가지의 인과를 낙욕(樂欲)<sup>152)</sup>하는 자, 이러한 어리석은 자는 진언과 진언의 상을 알지 못한다. 왜 그러한가? 인을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결과도 생기지 않는다. 이 인은 오히려 공이다.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 진언의 결과는 모두 인과를 떠났음을 알아야만 한다.<sup>153)</sup>”라고 한다.

上文所引我覺本不生乃至遠離於因緣偈. 及諸法本不生乃至因業等虛空. 如是等偈皆明法然具足之義.

앞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나는 본래 불생임을 깨닫고 인연을 떠났다.'라는 계송과 '제법은 본래 불생이고 인업이며 허공 등이다.'와 같은 계송은 모두 법연구족의 뜻을 밝힌 것이다.

151)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T.18, 22b29-c1): 我一切本初 號名世所依 說法無等比 本寂無有上.

152) 바라고 하고자 하는 것.

153)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T.18, 19b21-26): 祕密主諸樂欲因果者祕密主非彼愚夫能知眞言諸眞言相何以故 說因非作者 彼果則不生 此因因尙空 云何而有果 當知眞言果 悉離於因果.

又金剛頂云. 自性所成眷屬金剛手等十六大菩薩. 乃至各各流出五億俱胝微細法身金剛. 如是等文亦是此義也. 言法然者顯諸法自然如是. 具足者成就義無闕少義. 薩般若者梵語也. 古云薩云者訛略. 具云薩羅婆枳孃曩. 翻云一切智智. 一切智智者. 智者決斷簡擇義. 一切佛各具五智三十七智乃至刹塵智.

또한 『금강정경』에서 말하기를 “자성신에서 만들어진[自性所成] 권속, 금강수) 등의 16대보살<sup>154)</sup> 내지 각각에 오역 구족(俱胝)<sup>155)</sup>의 미세법신의 금강을 유출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문장은 또한 이러한 의미가 있다. 법연이라는 것은 제법자연(諸法自然)으로 이와 같이 되는 것을 나타낸다. 구족이라는 것은 성취의 뜻, 무결소(無闕少)<sup>156)</sup>의 뜻이다. 살바이라는 것은 범어이다. 예전의 보살이 이르기(薩)기<sup>157)</sup>이라는 것은 잘못된 축약(訛略)이다. 게다가 살라과지양랑(薩羅婆枳孃曩)<sup>158)</sup>이라고 한다. 번역하여 일체지지라고 한다. 일체지지라는 것은 지라는 것은 모든 성스러운 도(決斷簡擇)의 뜻이다. 일체의 불은 모두 5지·37지<sup>159)</sup> 내지 찰진지를 갖춘다.

次兩句即表此義. 若明決斷德則以智得名. 顯集起則以心得稱. 顯軌持則法門得稱. 一一名號皆不離人. 如此人數過刹塵. 故名一切智智. 不同顯家一智以對一切得此號. 心王者法界體性智等. 心數者多一識. 各具五智明一心王心數各各有之. 無際智高廣無數之義.

다음의 두 구는 이러한 의미를 나타낸다. 만약 결단의 덕을 밝힌다면 지를 지녀 이름을 얻는다. 집기를 현현하는 것은 마음을 지녀 얻는 것이다. 제지<sup>160)</sup>를 현현하는 것은 법문이라는 칭호를 얻는다. 하나하나의 명호 모두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인·수·찰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체지지라고 한다. 현가(顯家)의 일지(一智)를 지녀 일체에 대하여 이 호칭을 얻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심왕이라는 것은 범게체성지 등이다. 심수라는 것은 다일식<sup>161)</sup>이다. ‘각각 5지를 갖춘다.’는 것은 하나하나의 심왕·심수 각

154) 阿閼, 寶生, 阿弥陀, 不空成就의 금강계 4불의 사방을 둘러싼 각 4보살(4親近菩薩)을 집성한 16尊으로써 金剛薩埵, 金剛王, 金剛愛, 金剛喜, 金剛寶, 金剛光, 金剛幢, 金剛笑, 金剛法, 金剛利, 金剛語, 金剛業, 金剛護, 金剛牙, 金剛舉菩薩을 말한다.

155) koti. 수의 단위로서 10의 7승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십만, 천만, 억 등의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156) 부족하거나 적은 경우가 아닌 것.

157) sabbaññu의 음사. sarvajña의 속어형.

158) sarvajñāna의 음사. 一切智.

159) 금강계만다라를 형성하는 금강계 37존이 각각 지니고 있는 지혜.

160) 軌範을 護持하는 것.

161) 『大乘起信論』의 주석인 『摩訶衍釋論』에 설해진 10識 중의 9식으로 多와 一의 상대를 인정하는 識이다.

각에 이것이 있는 것을 밝힌다. 무제지라는 것은 높고 넓음이 끝없음(高廣無數)의 뜻이다.

圓鏡力故實覺智者. 此卽出所由. 一切諸佛因何得覺智名. 謂如一切色像悉現高臺明鏡之中. 如來心鏡亦復如是. 圓明心鏡高懸法界頂. 寂照一切不倒不謬. 如是圓鏡何佛不有. 故曰圓鏡力故實覺智.

‘원경력이므로 실각지이다.’라는 것은 이러한 이유를 나타낸다. 일체의 제불이 무엇 때문에 각지(覺智)라는 이름을 얻었나하면, 소위 일체의 모습과 형상이 모두 높고 평평한 밝은 거울(明鏡) 안에 드러나는 것과 같이 여래의 마음의 거울(心鏡) 또한 이와 같다. 둥글고 밝은 마음의 거울이 법계의 꼭대기에 높이 매달려 일체를 비추어 넘어지거나 어긋나지 않는 것과 같이 둥근 거울(圓鏡)은 어떠한 부처님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원경력이므로 실각지이다.’라고 한다.

卽身成佛義【終】

즉신성불의【끝】

## 약초

T: 『大正新修大藏經』

『弘大全』: 『弘法大師全書』

## 1차문헌

「性靈集」(『弘大全』.3)

『即身成佛義』(T.77)

「即身成佛義」(『弘大全』.1)

『金剛頂瑜伽修習毘盧遮那三摩地法』(T.18)

『金剛頂瑜伽中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論』(T.32)

『金剛頂經一字頂輪王瑜伽一切時處念誦成佛儀軌』(T.19)

『金剛頂瑜伽金剛薩埵五祕密修行念誦儀軌』(T.20)

『金剛頂一字頂輪王瑜伽一切時處念誦成佛儀軌』(T.19)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T.18)

『成就妙法蓮華經王瑜伽觀智儀軌』(T.19)

## 2차문헌

加藤精一

2013. 『空海「即身成佛義」「聲字實相義」「吽字義』, 東京: 角川學芸出版.

金岡秀友

1985. 『即身成佛義』, 東京: 太陽出版.

那須政隆

1982. 『即身成佛義』의 解説』, 東京: 成田山仏教研究所.

賴富本宏

1988. 『空海』, 東京: 筑摩書房.



이석환

2013. 『空海의 教學思想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村上保壽

1992. 「『即身成佛義』の思想と構造」, 『密教文化研究所研究紀要』5, pp.1-32.